



불펜의 '소금'

이준영

KIA에 '천금'

KIA 타이거즈 좌완 이준영이 KBO리그 44번째로 4년 연속 50경기 출장을 기록하는 등 불펜의 '소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4년 연속 중간계투 50경기 출장 'KBO리그 44번째' "티나지 않는 자리 상관없다...부상없이 완주하고파"

좌완 이준영이 '꾸준함'을 무기로 타이거즈 마운드를 지킨다.

KIA 타이거즈 이준영은 지난 3일 LG 트윈스와의 홈경기에서 7회 양현종에 이어 팀의 두 번째 투수로 등장했다. 이날 두 타자를 상대한 이준영은 탈삼진 하나를 더해 0.2이닝을 무실점으로 책임지면서 홀드를 기록했다.

팀 승리에 역할을 한 이준영에게 이 경기는 시즌 50번째 등판이었다. 이와 함께 이준영은 KBO리그

에서 44번째로 4년 연속 50경기 출장을 한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불펜은 '잘해야 본전'인 곳은 자리다. 가장 변화가 많은 자리이기도 하다.

그만큼 4년 연속 50경기 이상을 소화하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점에서 이준영은 박수를 받을 만하다. 2020시즌에도 48경기를 소화했던 것을 감안하면 그는 KIA 불펜에서 가장 꾸준하게 '소금' 역할을 해오고 있다.

지난 시즌 불펜전 구성에 많은 변화가 생겼지만

이준영은 좌완 가름에 시달리던 KIA 불펜에서 사실상 '나홀로 좌완'으로 역할을 했던 선수이기도 하다.

이준영은 "50경기 출장이 큰 의미는 없지만 크게 아프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이라서 좋다"며 "시즌 초반에는 페이스도 안 올라오고 어깨 부분이 안 좋아서 빠지기도 했는데 큰 부분은 아니었다. 최대한 아프면 안 되니까 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4시즌 연속 50경기'를 이야기했다.

이준영의 관리 비결은 최대한 공을 던지지 않고 '실전'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준영은 "최대한 공을 많이 안 던지려고 노력을 한다. 불펜에서도 최대한 조금 던지려고 한다. 피칭할 때도 상태 확인 정도로 한다. 코치님들도 시합에 맞춰서 하라고 하신다"며 "예전에는 양이 많았다.

그런데 컨디션이 좋는데 막상 올라가서 안 좋을 때가 있고 캐치볼 할 때 안 좋은 데 마운드에 올라가서 좋을 때도 있다. 지금은 믿고 던진다. 똑같이 던지지는 생각으로 한다. 경험이 쌓이면서 자신감이 달라진 것 같다. 예전에는 위축되고 걱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 안 하고 자신 있게 똑같이 던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불안함을 떨친 이준영은 자신을 믿고 경기에 집중하면서 부상 관리를 하고 있다. 그는 경기 경험과 후배들을 통해 매년 발전하고 있다.

이준영은 "이제는 좌완이 더 많아졌다. 그런 게 편한 것도 있고, 같이 잘하니 좋은 것 같다"며 "팀 분위기도 좋고 그러니까 애들이 더 찾아서 하는 것 같다. 나도 쉬고 싶고 그런데 후배들이 옆에서 같이 하고 하나가 대충할 수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내가 어렸을 때는 눈치도 많이 보고 했는데 지금 후배들은 더 적극적으로 하니 선배들이 따라가는 것 같다. 편하다. 내가 모르는 것 있으면 애들이 알려주고, 애들도 궁금한 것 물어보면 알려주고 그러니까 대화가 잘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목목한 이준영은 남은 시즌도 조용하게 꾸준하게 자리를 지키겠다는 각오다.

이준영은 "티가 안 나는 자리라고 하지만 서운하고 그런 것은 절대 없다. 한 타자를 상대하든 1이닝을 소화하든 나가는 것은 똑같은 것이니까 서운하고 그런 것은 없다. 나도 내 실력을 알고 있고,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꾸준하게 오래 자리를 지키겠다"며 "남은 시즌도 아프지 않고 끝까지 역할을 잘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삐까뻔쩍'하게 살게 해줘 감사 모교서 후배들 잘 가르칠게요

강경학 동성고 코치 겸필 찾아
한화서 2011년 프로생활 시작
2021년 KIA 백용환과 트레이드
부상으로 아쉽게 선수생활 마감
"언젠가 다시 팬들 만나고 싶다"



코치로 변신한 '삐까뻔쩍' 강경학이 챔피언스필드를 찾아 옛 동료들과 재회했다.

동성고 출신의 강경학은 2011년 한화 이글스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해 근성 있는 플레이와 중독성 있는 '삐까뻔쩍' 응원가로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그는 2021년 포수 백용환과의 트레이드를 통해 고향팀 KIA 유니폼을 입었다. 기대 속에 고향팀으로 왔지만 부상으로 25경기 출장에 그쳤다.

조용히 그라운드를 떠났던 그는 올 시즌부터 모교 동성고에서 코치 생활을 하고 있다.

5·6일 챔피언스필드에서 KIA와 한화의 2연전이 전개되면서 그는 경기장을 찾아 옛 동료들을 만났다.

부상으로 프로 생활을 마감하면서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지 못했던 그는 "한화 팬들에게는 야구하면서 '삐까뻔쩍'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KIA 팬들에게는 잘해보고 싶고 잘하고 싶었는데 몸이 안 따라줘서 죄송하다. 부상을 안 당했으면 선수 생활을 더 할 수 있었을 것인데 관리 못한 내 책임이기도 하다. 대신 광주에서 좋은 후배들 양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 코치는 "모교라 애착이 가고 잘 가르쳐주고 좋은 것 전수해주고 싶은 마음이다"며 "아직

1년이 되지는 않았지만 애들 가르치면서 선수 시절에 코치님들이 담당하셨던 것을 느끼기도 한다(웃음). 선수들이 성장하는 게 보이면 뿌듯하다"고 말했다.

또 "지도를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기본이다. 기본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르치고 있다. 기본이 하나만은 잘 가르치는 코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루틴이나 기초적인 것을 만들어주고 선수들이 할 수 있게 만들어주려고 한다"고 지도자로서의 목표를 이야기했다.

KIA에서는 '대투수' 양현종, '안방마님' 한준수, '해결사' 김도영 등이 동성고 출신.

강 코치는 "동문을 떠나서 더 잘해서 한국 야구 발전에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한국이 야구 강국이라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다"며 "또 제자들이 야구 잘해서 그라운드에서 뛰게 하는 게 바람이다. 나도 언젠가 팬분들 다시 웃으면서 볼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발롱도르 후보, 메시·호날두 없다

21년 만에 명단서 빠져...손흥민·김민재 등 아시아계도 '0명'
비니시우스·로드리·벨링엄 '3파전' 예상...10월 28일 발표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알나스르), 손흥민(토트넘), 김민재(윈헨)가 나란히 세계 축구 최고 권위의 상으로 손꼽히는 '2024 발롱도르' 30인 후보 명단에서 빠졌다.

발롱도르를 주관하는 프랑스풋볼은 5일 올해 부문별 후보 명단을 공개했다.

팬들의 관심을 끈 남자 후보 30명에는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역대 발롱도르 최다 수상(8회)에 빛나는 메시와 5차례 수상의 영광을 맛본 호날두가 나란히 명단에서 빠졌다. '메날두(메시+호날두)'가 발롱도르 30인 후보 명단에서 빠진 것은 2003년 이후 21년 만에 처음이다.

메시와 호날두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발롱도르를 양분(메시 5번·호날두 5번)하며 세계 최고의 라이벌로 인정받아왔다.

호날두가 2017년을 마지막으로 발롱도르를 받지 못한 가운데 메시는 지난해까지 3차례 더 수상하며 역대 최다 수상자로 우뚝 섰다.

하지만 메시와 호날두 모두 유럽 무대를 떠나 각각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리그로 떠나면서 상대적으로 유럽 선수에게 유리한 발롱도르와 인연이 멀어지게 됐다.

'메날두' 뿐만 아니라 국내 팬들의 관심을 끌었던 '캡틴' 손흥민과 '철기둥' 김민재도 30인 후보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다.

김민재는 2023년 발롱도르 30인 후보 명단에 포함됐지만 이번에 빠졌고, 손흥민은 2019년과 2022년에 두 차례 후보에 들었지만 올해에도 이름을 올리지는 못했다.

손흥민과 김민재가 모두 빠지면서 발롱도르 30인 명단에는 아시아 출신 선수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 발롱도르 30인 명단에는 유로 2024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한 스페인과 잉글랜드 출신 선수들이 각각 6명씩 포함돼 대세를 이뤘다.

스페인 출신으로는 다니 카르바할(레알 마드리드), 알레한드로 그리말도(레버쿠젠), 다니 올모(라이프치히-버셀로나), 로드리(맨체스터 시티-아하 맨시티), 니코 윌리엄스(빌바오), 라민 야말(바르셀로나)이 후보에 포함됐다.

잉글랜드 출신으로 필 포든(맨시티), 해리 케인(윈헨), 콜 팔머(맨시티-첼시), 데클란 라이스, 부카요 사카(이상 아스널), 주드 벨링엄(레알 마드리드)이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유로 2024 8강에서 탈락한 독일도 최근 은퇴를



손흥민(오른쪽)과 김민재.

선언한 토니 크로스를 포함해 4명의 후보를 낸 가운데 4강에서 떨어진 프랑스는 킬리안 음바페(레알 마드리드)와 윌리엄 살리바(아스널)가 후보로 뽑혔다. 이밖에 지난해 발롱도르 투표에서 메시에 이어 2위를 차지했던 '독점 괴물' 엘링 홀란(맨시티)과 인종차별주의자들과 싸우고 있는 비니시우스 주니오르(레알 마드리드)도 후보에 포함돼 생애 첫 수상을 노린다.

2024 발롱도르 수상자는 현지시간 10월 28일 발표된다.

/연합뉴스

세플러·매킬로이 vs 디셈보·킵카 PGA-LIV 격돌

12월 중순 라스베이거스에서

미국프로골프(PGA)투어와 LIV 골프의 간판 선수가 맞붙는다.

ESPN은 스코티 세플러(미국),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와 브라이슨 디셈보, 브룩스 켈카(이상 미국)가 오는 12월 중순 라스베이거스에서 18

홀 경기에 나선다고 5일(한국시간) 보도했다.

대회 방식과 코스, 그리고 날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식 대회가 아닌 유료 TV 중계용 이벤트 대회지만 사실상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골프 선수 4명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4명이 PGA투어와 LIV 골프의 간판 선수라

서 PGA투어와 LIV 골프의 자존심 대결의 성도가 미래 흥미를 더할 전망이다.

LIV 골프는 PGA투어에 라이더컵 형식의 대항전을 제안한 적이 있다.

이번 이벤트 대회는 TNT가 중계한다.

TNT는 특급 선수가 참가하는 이벤트성 골프 대회 단골 중계사다. '더매치'라는 이름으로 2018년 타이거 우즈와 필 미켈슨(이상 미국)의 맞대결 중계가 시작되었다. 매킬로이, 디셈보, 켈카도 '더매치' 시리즈에 참가한 바 있다.

/연합뉴스